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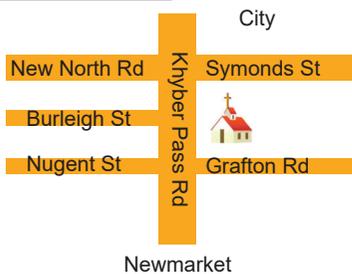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다음 주일(7월 17일)은 교회창립 17주년이 되는 주일로 창립 감사예배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바랍니다(설교: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원로 목사).
2. 바누아투 단기선교팀이 사역 중입니다. 귀국(7월 12일)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사역 하도록 계속 중보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3. 창립주일 및 임직예식을 위한 각 분야별 담당자들은 부원들을 확인하여 은혜스러운 잔치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창립주일에 식사교제는 청소년부실에 부페식으로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는 로비와 사무실 본당 뒷편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니 질서를 지켜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6. 이번 주 월요기도회는 쉽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28호

2016년 7월 10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이사야 55:1-2

◎찬 송 기록 기록 기록 전능하신 주님 8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대표기도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로마서 8:5-11

찬양대 찬양 주 예수 넓은 품에/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 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김민한 형제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박정은 집사

성경봉독 골로새서 2:8-15

설교 더하기 인생/
이태한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주기도 다같이

7월 교회일지

선교파송주일: 7월 3일(주일)

단기선교: 7월 5일(화)-12일(화)

금요저녁기도회: 7월 8일(금요일)

창립주일(임직): 7월 17일(주일)

공동체주관 수요예배: 7월 27일(수)

예 배 안 내: 김철재/김명춘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남지은 집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7월 20일 수요: 박현주 집사

7월 20일 애찬: 박정은 집사

7월 24일 주일: 박덕철 장로

금주의 기도제목

1. 창립주일 감사예배와 임직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2. 2016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남은 하반기도 최선의 삶을 살고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3. 단기 선교를 통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며 후속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선교란 이번 주는 바누아투 단기선교팀 사역현황입니다.



아동부 사역에 열중한 단기선교팀

치과 사역중인 선교팀, 석회가 섞인 물을 먹는 관개로 나이에 비해 치아가 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침술에 열중한 선교사님. 작년만 해도 침을 겁을 내서 맞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침을 맞겠다고 한다.

의료사역 중 첫 과정인 가족력, 건강상태 혈압, 당료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

